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2.13~2017.12.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손쉬운 논문쓰기 노하우는?



쫄지마, 얼지마, 숨지마, 스님의 논문법

자현 지음 | 불광 펴냄 | 1만 5천원

초등학교 성적표에 '가'도 있고, 학번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나쁜 기억력에 독수리타법으로 속도마저 밀리는 자현 스님. 그는 어떻게 국내 최다인 4개의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했을까? 또한 어떻게 매년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 가장 많은 논문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수록하며 '논문의 신'으로 통하게 되었을까?

자현 스님은 2년 전 "머리 나쁜 나도 하는데, 당신들은 더 잘할 수 있다"며, 열등감을 실력으로 바꾸는 역전의 공부법인 〈스님의 공부법〉을 내놓았다. 이후 가는 곳마다 대학원생들과 학자들로부터 논문 쓰기 비법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이에 단편적으로 조언을 해주던 것에 한계를 느끼고, 〈쫄지마 얼지마 숨지마, 스님의 논문법〉을 통해 자신의 노하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했다.

저자, 석사 2개와 박사 4개 취득
매년 15편 안팎 논문 학진 등재
성공적 대학원 생활 위한 가이드

스님의 논문법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그만큼 획기적이며 파격적이다. 성격적으로나 승려라는 특수신분상 지도교수와 그리 친밀하지 못했기에, 자신만의 논문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선행 연구와 논문을 취합하고 분석하며 무던히도 애썼다. 그리고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마침내 누구나 손쉽게 논문을 구상하고 작성하는 법을 터득했다.

스님은 책 속에서 "나는 성격적으로나 승려라는 특수신분상 지도교수와 그리 친밀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석사학위 2개, 박사학위 4개를 취득했다. 필연적으로 남과는 다른 노력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나만의 노하우, 즉 족보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현 스님은 이를 토대로 매년 15편 안팎의 논문을 학진 등재지에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에는 독보적인 1위다. 이제 누구나 논문을 손쉽게 쓰고 시간도 비약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빠짐없이 공유하고자 한다.

이 책은 논문을 '잘' 쓰는 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대학원의 구조와 논문의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내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논문 구상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준다. 이 방법만 숙지하면 논문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순식간에 지울 수 있다. 그리고 핵심은 손쉬운 논문 쓰기의 기술이다. 이는 논문만 떠올리면 머리가 캄캄해지는 사람들에게, 논문 통과의 특급 비법을 통해 빠른 졸업을 약속해준다.

또한 이 책은 기존의 '논문작성법' 책과 달리, 저자의 대학원 생활을 비롯해 논문에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어 대학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앞둔 사람에게는 즐겁고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위한 친절한 가이드 역할도 해준다.

"그만 논문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살라!" 주위를 둘러보면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논문을 통과하지 못해 졸업을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 그들에게 논문은 일생일대의 고민이자 걱정거리다. 논문에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히고 있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극심한 논문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대학원을 떠도는 '공부 낭인'들에게, 스님의 논문법은 논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해준다. 비록 중생구제는 뒤로 미룰지언정 논문 통과와 졸업이라는 해탈은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책은 누구에게 필요할까? 스님에 말에 의하면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사람

△논문을 한 편도 써보지 못한 사람 △석사논문을 명작처럼 완벽하게 만들려는 사람 △지도교수와 친밀하지 못한 사람 △자력으로는 논문 쓸 엄두를 못 내는 사람 △논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졸업을 못해 대학원을 오래 다니는 사람 △대학원과 직장을 병행하며 논문 쓸 시간이 없는 사람 등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원효 탐구 50년의 결과물

원효의 열반경종요

은정희 · 김용환 · 김원명 역주 | 민족사 펴냄 | 2만8천원



민족사 학술총서 제72번째 책으로 〈원효의 열반경종요(涅槃經宗要)〉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원효 연구의 대가인 은정희 선생이, 젊은 학자인 김용환, 김원명 선생과 함께 10여 년 간 묵묵히 매진한 번역의 결과물이다. 은정희 선생은 1991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 별기(別記)〉를 완역했다. 이후 원효의〈금강삼매경론〉과 〈이장의(二障義)〉를 역주(譯註)했고, 이번에 나온 책은 원효 저술에 대한 네 번째 역주서이다. 이것은 '원효 탐구 50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열반경〉은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후대에 성립한 경전으로, 최초로 "일체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갖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고 하는 내용이 설해져 있다. 또한 부처님은 80세로 열반(입멸)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이 세상(법계)에 계신다는 '불신상주(佛身常住)'가 설해졌으며, 또한 열반은 무상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며, 진정은 즐겁고, 진정한 나이고, 진정으로 깨끗하다는 '열반상락아정(涅槃常樂我淨)'에 대해 설한 경전이다. 즉 열반경은 열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서술했다고 할 수 있다.

'열반(涅槃)'이란 산스끄리트어인 '니르바나'의 한자 표기(소리 표기)이다. '니르바나'는 '번뇌를 소멸하다'는 뜻이며, 곧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無智)이라고 하는 삼독(三毒) 번뇌의 불을 꺼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열반은 깨달음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죽음'을 뜻하는 의미로도 널리 사용된다. 마음의 괴로움과 함께 육체적인 괴로움까지 소멸돼야만 진정한 의미의 열반이란 것이다. 그런 관점서 부처님을 비롯한 고승들의 죽음을 '열반' '입적(入寂=번뇌가 소멸되어 고요해짐)' '입멸(入滅=번뇌가 소멸 세계에 들어감)' 등이라고 하게 된 것인데, 그 의미는 모두 깨달음과 동의어이다. 또한 '깨달음'의 뜻으로 '멸도(滅度)'라고 한역(漢譯)한다.

〈열반경종요〉, 열반경 핵심 요약
단순 번역 넘어선 비교 역주서

그리고 육체마저 소멸된 상태를 '반열반(般涅槃)'이라고 하는데, 반열반은 '완전한 깨달음'이다. 따라서 '열반' 혹은 '반열반'은 불교 최후의 실천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은정희 선생 등 3인이 역주한 이 책은 신라의 대표적 고승인 원효 스님이 36권에 달하는 방대한 '열반경'의 핵심을 요약한 〈열반경종요(涅槃經宗要)〉를 번역하고 이어 상세히 주석을 붙인 책이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고 몇 가지 번역서에 대해 자세하게 비교 대조한 역주서이다. 따라서 원효의 열반경종요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참고서가 될 것이다.

역주자 은정희 교수는 "역주자인 세 사람은 6년 동안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모여 역주 작업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차례 이상을 반복했다. 인용문마다 출처를 찾아 대조하고, 도표와 전체 구조표를 만들어 가며 읽고 또 읽었다. 특히 김용환 선생의 치밀한 사고와 철두철미한 탐구정신은 번역의 충실성을 더하는 데에 일조했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회고했다.

김주일 기자

사찰도 아는만큼 보인다

재미있는 사찰이야기

한정갑 지음 | 산지니 펴냄 | 1만 8천원



사찰에 들어서면 꼭 만나게 되는 4대 천왕. 왜 그들은 무기를 들고 사찰을 지키고 있는 걸까, 대웅전의 부처님상의 손 모양은 무엇을 뜻할까, 절은 항상 산에 있어야 하는 걸까. 사찰에 가게 되면 이런저런 의문이 들지만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는 안내가 없다. 사찰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불교 사상에 바탕을 두고 조성되었고, 그것을 조성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본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없다. 〈재미있는 사찰 이야기〉는 전통 사찰과 사찰의 각종 조형물에 대한 안내서로서,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 사찰과 조형물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저자는 전국의 전통 사찰을 답사하면서 사찰에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고, 조형물에 깃든 불교의 교리를 심도 깊게 풀어간다.

1부에서는 사찰의 배치도와 함께 진입해 가는 순서대로 불교 교리를 설명한다. 불교에서 수미산 정상은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곳이다. 수행자는 이곳을 통과해야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사찰은 그 수미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수미산에 가기 위한 여러 관문이 사찰의 구조와 배치에 담겨 있다.

저자는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사찰의 배치도와 구조에 깃든 불교적, 문화적 상징에 대해 심도 깊게 설명한다. 2부에서는 지옥세계에서 완성의 세계로 이어지는 중생의 윤회세계와 우리나라에서 신봉되는 불상을 설명하였다. 사찰의 각 구조물에 보이는 중생들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10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10세계에 대한 저자의 상세한 설명은 석가모니불, 미륵불, 불교 탱화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3부에서는 탑과 석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대에 따라 변천한 탑의 양식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다. 우리나라 탑의 재료는 주로 나무와 돌로, 특히 화강암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탑과 석등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천했다. 저자는 삼국시대에 각기 달랐던 탑의 특징, 이후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탑의 모양이 시대 배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존하는 탑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4부는 목조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사찰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조 건축물에 대한 용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돌과 흙을 쌓는 방법인 기단, 기둥 수와 모양에 따른 양식, 안과 밖을 구분하는 벽면과 창호 등 사찰을 이해하기 위한 세부적인 양식에 대해 알려준다.

김주일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